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5월 14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13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13.(금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전동욱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김혜림 사무관(044-203-4879)

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

- 탄소통상자문단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, 기후클럽 등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5.13일(금) 통상·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**탄소통상 자문단 회의**를 개최함

○ 산업부는 **국제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**하고 **민·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올해 1월 **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**하고 정기적으로 **자문단 회의**를 개최해왔음

< 세미나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2.5.13(금) 16:30~18:00, 무역협회
- **주 제** : 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
- **발 제** : 문진영 팀장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팀)
  이수영 부장 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랑크프루트 무역관) *화상접속
- **참 석** : **(정부)** 통상법무정책관(주재), 통상법무기획과장, 담당 사무관 등
  (전문가) 서울시립대,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포스코경영연구원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철강·무역협회 등

□ 금일 회의는 유럽연합이 도입예정인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**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**기후클럽*** **등 다자·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**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*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,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

□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, **복수·다자간 협력 틀** 안에서 **협력 방안을 논의**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

① 먼저 **대외경제정책연구원**은 국제적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**유사입장국들과 공조**해나가야 하며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**국제기구를 중심**으로 진행되는 **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**해야 한다고 제안함

-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**기후클럽, 국제 철강·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**되어 **국제적 논의**가 확대·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

② 이어,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**는 독일이 **G7(지세븐) 정상회의**(6.26-28) **주요 성과**로 **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**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,

-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, **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**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

□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**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**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**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**가 있으므로, **국제적 논의**를 거쳐 **공감대**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"고 언급함

○ 나아가 "**국제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**을 **면밀하게 검토**하여 **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**해 나갈 예정이다"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김혜림 사무관(☎ 044-203-48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